

천만 영화 '파묘' 장재현 감독, 광주 관객 만난다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6주년 기획전...12-14일

'오래된 미래' 주제...총 12편 독립영화 상영 감독과 함께 하는 마스터클래스·시네토크도

천만 영화 '파묘' 등 한국적 정서를 담은 오컬트 영화 장인으로 손꼽히는 장재현 감독, '리틀 포레스트' 등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연출하고 있는 임순례 감독이 광주 시민들과 만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오는 12-14일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6주년 기획전 '오래된 미래'를 개최한다.

1900년대 명작부터 최근 화제작까지 한국영화 속 독립영화의 위치와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자리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독립영화 총 12편(단편 8, 장편 4)을 상영한다.

첫날인 12일 오후 3시에는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 오후 5시10분 류승완 감독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오후 7시 김성수 감독의 '비트'가 상영된다. 2000년대 초반 작가주의 영화화로, 배우나·이요원·류승범·정우성 등 한국영화 아이콘이 된 배우들의 초기 시절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13일 오후 3시30분에는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일궈내는 데 원동력이 된 배우와 감독들의 독립 단편영화 4편을 '단편모음 1' 섹션으로 상영한다.

정윤철 감독의 '기념촬영',

변혁·이재용 감독의 '호모 비디오쿠스', 김성수 감독의 '비명도시', 임순례 감독의 '우중산책'으로 구성됐다. 이중 '서울의 봄' (2023)으로 극장가에 불을 붙여왔던 김성수 감독의 '비명도시'는 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당시 디지털 복원돼 상영된 이후 극장 기획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오후 5시에는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임 감독의 마스터클래스가 진행된다. 그는 1994년 '우중산책'으로 제1회 서울단편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지난해 개봉한 고예산(순제작비 30억원 이상) 한국 상업영화 35편을 연출한 감독 중 유일한 여성 감독이기도 하다.

14일 오후 6시에는 IPTV와 OTT 체제가 태동하던 시절 등장한 단편영화 한마당, '단편모음 2' 섹션이 상영된다. 극장과 시네필 중심 영화문화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드러내며 주목 받은 감독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엄태화 감독·엄태구 주연의 '술', 조성희 감독·구교환 주연의 '남매의 집', 남궁선 감독·박정민 주연의 '세상의 끝', 장재현 감독의 '12번째 보조사제'로 구성됐다. 이 작품들은 현재 OTT로 관람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획전



장재현 감독의 '12번째 보조사제' (사진 위)와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 스틸컷

을 통해서만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영화 4편 모두 영어 자막이 함께 표기돼 외국인 관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단편모음 2' 상영 후에는 장재현 감독과 함께 "장재현이라는 장르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시네토크를 진행한다. '12번째 보조사제'는 영화 '파묘'로 2024년 첫 천만관객을 동원한 장 감독의 독립영화 데뷔작으로, 이를 장편화한 것이 2015년 개봉한 '검은 사제들'이다. 장 감독은 '파묘' 개봉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기획전 '오래된 미래'는 유료상

영으로, 1인 8천원이다. 예매는 '디트릭스-영화관-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영화 정보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순례 감독 마스터클래스와 장재현 감독 시네토크가 있는 회차는 상영 당일 현장에서만 취소 가능하다. 이경민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6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기획전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영화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며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불편한 편의점, 편한 북토크'

ACC, 오는 13일 김호연 작가 북콘서트...일러스트展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인기 도서 '불편한 편의점'의 저자 김호연 작가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연다.

이번 북콘서트는 'ACC 도서관과 이야기: 불편한 편의점, 편한 북토크'를 주제로 오는 13일 ACC 극장3에서 개최된다.

이날 김 작가는 '소설가의 삶과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김 작가는 2013년 데뷔작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후 영화와 만화, 소설을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러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부터 '불편한 편의점'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골목 모퉁이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희로애락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담아낸 '불편한 편의점'은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 국립중앙도서관 '2022 올해의 책'에 선정된 인기 도서다. 1·2권 통합 150만부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21개국에서 번역돼 출간됐



다. 또 ACC는 책이 단순히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표지나 삽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합쳐진 복합 콘텐츠임을 알리고자 미니 원화전도 함께 기획했다. '불편한 편의점 일러스트展'을 주제로 한 원화전이 9일부터 두 달간 ACC 도서관 이벤트를 통해 열린다. 반지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불편한 편의점' 표지의 사계절 에디션을 포함해 다양한 원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청룡의 기운' 베니스를 휘감다 박소빈 베니스 개인전, 16일부터 11월24일까지

'용의 화가' 박소빈 작가가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용을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인다.

오는 16일부터 11월24일까지 '박소빈: 용으로 들어가다'를 주제로 한 박 작가의 개인전은 베니스비엔날레 협력기관 갤러리인 산비탈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가에게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7개월간 한국 작가로서 단독으로 전시한 경우는 드물 뿐더러 전시장 또한 베니스의 중심지이자 본전시관과 인접한 산



'The Creation of Female Myth'

마르코 광장 인근에 자리해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에서는 17m 길이의 '부석사 설화' 등 대작 3점을 비롯해 소품 4점 등 1

0여점 작품을 소개한다. 작은 연필로 거대한 용이를 가득 메운 드로잉 작품들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박소빈 작가는 "갑진년 청룡의 해 광주에서 시작한 용 전시를 세계 최대

의 미술 축제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선보이게 돼 설렌다"며 "제 작업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이번 베니스 개인전을 통해 앞으로도 세계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가 답이다

영무에다음 현재 사전 청약 접수중 (특별혜택)

명품의 가치를 그대로 누리는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에다음 더 퍼스트

최고의 가치

달빛내륙철도 호재

페이스튼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HILLSTATE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로얄층 마감임박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1,466세대 (구)33평형, 43평형

계약금 5%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선착순 동 호지정

대표 전화 1533-8316

TYPE **82A | 84B | 84C** | 문의 전화 **1533-8321**